

우수 연구 업적으로 전 세계 '우뚝'

전북대 김범석·김재수·양우현·이홍석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코엑스에서 시상식

전북대학교 김범석(수의대 수의학과)·김재수(농생대 농생물학과)·양우현(사법대 과학교육학부)·이홍석 교수(자연대 물리학과)가 4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지난해 국내 과학기술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소속 학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우수논문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는 것으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범석 교수는 한국독성학회 발행 학회지에 발표한 'Lactobacillus Aggravate Bile Duct Ligation-Induced Liver Inflammation and Fibrosis in Mice'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과도한 유산균 섭취가 간염과 간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독성병리학적 연구 성과다. 이를 통해 유산균의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간 손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수 교수는 지난해 (사)한국응용곤충학회 발행 저널에 발표한 'Terrestrial mollusc-mediated entomopathogenic fungal library construction for pest management'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농업 해충 방제를 위해, 살충성 미생물 소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양우현 교수는 한국지구과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지구과학회지'에 발표한 '백악기 음성분지 남서부의 구곡리-농다리 퇴적층과 퇴적환경'이라는 논문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연구 지역의 퇴적학적 상세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퇴적계 모델을 학술적으로 제시했다. 대중 친화적인 농다리-미르숲에서 지질관광명소 또는 중등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은 전북대학교 교수들-왼쪽부터 양우현, 김재수, 김범석, 이홍석 교수.

자연과학적인 체험학습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홍석 교수는 한국진공학회에서 발행하는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에 발표한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Water Soluble Fluorescent Copper Nanoparticles'라는 논

문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화학적 환원법을 이용한 수용성 구리 나노입자의 합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로, 구리 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와 생물, 화학 센서 등에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라이프스킬 기반 건강프로그램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라이프스킬을 기반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ye 나선다고 밝혔다.

라이프스킬(Life Skills) 기반 건강 프로그램이란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 자기관리, 자존감증강 등을 높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주제 선택 활동의 지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다양화를 추진해 성교육 교수·학습 이론 및 방법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5~6월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12~13월은 중·고등학교

교 교원을 대상으로 50명씩 2회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교육인관센터와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교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라이프스킬 전문강사 정미영의 '문제해결 및 자기관리' ▲중앙대 이규영교수의 '라이프스킬 외국 동향 및 자기주장 잘하기' ▲성산중 조근혜 교사의 '비판적 사고 및 의사결정 증진하기' ▲한국라이프스킬 교육센터 박인숙 강사의 '생명존중과 자기관리' 특강과 현장 설문 등이 이어진다.

또한 라이프스킬을 이용한 성교육

수업모형 만들기, 자아성장 및 건강증진 차원에서의 성교육에 관한 라이프스킬 체험형 지도 방법, 관련 교과와 연계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성교육 등 모듈별 협업과 브레인스토밍 등 창의성을 강조하는 체험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성교육에 접목해 학생의 흥미와 학습 욕구를 고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새일센터, 코딩·드론지도사 수료생 전원 취업 쾌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3일 코딩·드론지도사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전원 100% 현장취업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딩·드론지도사 교육과정은 총 140시간으로 구성돼 전문 강사진과 다양한 교구 및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중심의 창의융합 수업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 교육과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고의 화두의

주인공인 코딩과 드론이라는 SW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직접 드론을 프로그래밍해 자율 비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작과 기능을 제어하고 조작용으로써, 그 이상의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이날 직업교육훈련 수료증 전달과 함께 코딩, 드론, 3D펜 3종 자격증도 같이 수여됐다.

이번 교육 수료생들은 7월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전주시에 봉서초, 청명

초, 전주만성초, 이서초 등 4개 초등학교를 비롯, (주)큰사람이카데미, (주)에니쉬리본, 에어스쿨, 배나무교육공동체 등 지역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코딩·드론 전문강사로 본격적인 현장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코딩·드론지도사 분야는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라 나이를 불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든 미래유망직종으로 새롭게 도전해 볼만한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어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

이윤애 센터장은 "미래 4차 산업과

연 업종의 증가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코딩과 드론 분야는 미래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서 취업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기업 및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딩·드론지도사 직업교육훈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정읍·완주서 찾아가는 수학체험 진행

전북과학교육원 수학체험센터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대중화를 위해 연중 진행하는 '2019 찾아가는 수학체험 이동교실'이 7월에는 정읍지역 행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읍여자고등학교에서, 완주지역 행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별고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된다.

찾아가는 수학체험 이동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수학교사들과 함께 수학 관련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다.

또 수학체험, 수학게임, 수학대회, 수학클리닉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개 부스가 운영되면서 수학에 대한 재미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킵피터, 스키암푸스, IQ퍼즐랩, 정십이면체 달력, 바이러스 다면체, 종이접어 한 번에 자르기, 수학으로 영화를, 로또의 확률 등이 있다.

각 부스에는 교사 1명과 도모학생 2~3명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부스별 체험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정인 박사, '한국 대표할 생체 과학자' 선정

전북대학교 김정인 박사(바이오노시스템공학과 연구조교수)가 한국생체재료학회 주관하는 '한국을 대표할 젊은 생체재료 과학자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김 박사는 나노 바이오 복합재를 이용한 신경재생분야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박사는 그동안 나노토포그래피적인 나노 패터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3D 나노 지지체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조직재생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를 해왔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세계 상위 10% 이내 저널 등에 10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고, 11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등 주목받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번 수상자 선정으로 김 박사는 오는 8월 23일~25일까지 중국 다롄 웨일드스페이스센터에서 열리는 젊은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Young Scientist Exchange Program)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젊은 생체재료 과학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정인 박사는 "이번 성과는 연구 수행에 기반을 제공해 준 전북대 연구 지원 관계자들과 함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실험실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재료 과학과 나노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나노 물질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체적용이 가능한 인체 삽입형 지지체와 의료기기 개발 관련 연구에 더욱 정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19일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진안중앙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젝트 열려

초등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2019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 지난 1일 진안중앙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훈련은 진안중앙초등학교 119소년단 학생 19명이 지난 5월 27일부터 5주간 민간전문가, 지역유관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토의하고 관련내용을 배워가며 실천한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 나성진 사업단장, 전북 안살련 김인숙 강사, 진안119안전센터 유행택 센터장 등 전문가에게서 재난 발생시 대처법과 훈련 기획 등 관련 내용을 배우고 실천했다.

이날 진행된 훈련은 진안중앙초 전교생 173명이 참여해 6.0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화재 상황으로 가정에 진행됐다.

훈련을 주도한 진안중앙초 119소년단 19명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메뉴얼과 대피지도도를 바탕으로 상황실뮌, 안전 유도반, 소화반, 환지이송팀, 응급처치팀으로 역할을 나눠 훈련했다.

훈련을 주도한 이슬비(13·6학년) 학생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지 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에 대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도내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고, 또 많은 학교들이 학생 주도의 안전교육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